천국이 나를 탐내게 하라

(마태복음 13:45~46)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국이 나를 탐내게 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이 나를 탐내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비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스카우터(Scouter)로 오셨습니다. 프로구단의 스카우터들이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 재능 있는 선수를 선발하여 영입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탐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영입하러 오신 것입니다. 독일에서 뛰고 있던 손흥민 선수를 영국 토트넘의 스카우터들이 눈독 들여서 영입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영입하시기 위해 탐내고 계실까요? 본문의 비유를 통해 그 대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나왔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본문의 진주 장사의 비유는 짝을 이루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비유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도록 제시되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천국을 더 명확하고 은혜롭게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오해 없이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다시 한 번 떠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보화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이 보화를 독점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보화의 가치가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대상을 팔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천국의 좋음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좋음과는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천국의 좋음을 느끼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는 천국의 좋음을 느끼시는 티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고 천국의 좋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

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에도 마다하셨고 고대광실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명품이나 형통이나 재물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좋음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경향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농부가 전 재산을 팔아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는 비유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한편 본문 45절에서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비유에서는 보화가 천국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다만 이 비유에서는 진주가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역전되어서 이번에는 천국이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입장입니다. 즉 앞선 비유에서는 천국이 발견되어야만 하는 대상이었다면 오늘 비유에서는 발견하는 주체로써의 천국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지 않고 진주를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비유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비유의 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앞선 비유에서 농부는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보화를 찾고자 밭을 갈았던 것이 아닙니다. 반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고야 말겠다는 의도와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본문 비유에서 나타난 진주 장사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값진 진주와 같은 대상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비유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비유에서 천국이 주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천국이 합당한 사람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 댁에서 가사도우미를 찾고 있습니다. / 박 사장님 댁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주체는 집이지만 그 집이 의미하는 바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참여하는 일을 집이라는 범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천국을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체가 누구일지는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로써 거하시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천군천사가 전적으로 따르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천국이 이 땅에 대해서 진주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비유에서 천국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면 제목에서처럼 천국이 탐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을 찾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시편 14편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음으로써 천국 전체가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판가름하는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의 흠을 찾아내서 비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 천국의 관심사는 사람 찾기입니다. 지구상에는 현재 75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사람들을 속속들이 뒤져가며 합당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그러한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로 비유되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언론의 관심사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연예계의 소식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도 천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에 대해서도 모두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천국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해 세계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죄인들에게 발생하는 죄악과 더불어 마귀들의 활동 또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에서는 극히 당연하고 반복적인 일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관심거리는 아닙니다. 다만 천국에서 특별한 관심거리가 있다면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천국이 탐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탐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은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을 탐내지 않습니다. 또 천국은 스티브 잡스 같은 창의적인 사람을 탐내지도 않고 빌게이츠 같이 큰 재력이 있어서 기부와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 중에서도 천국이 탐내는 사람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천대 받는 사람들 중에서만 천국이 탐내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나가는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중에서도 천국이 탐내는 사람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기준이 그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앞서 나타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과 어울리는 비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친구 분이 같은 동네에 사셨습니다. 저희는 아들만 셋이었고, 친구 분은 장녀가 있고 그 밑으로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맏이끼리 친구가 되고 둘째끼리 친구가 되고 막내끼리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녀였던 따님이 이대 졸업반이었는데 그만 사고가 발생합니다. 연탄가스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 따님을 적십자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미 숨을 거두었기에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냉동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연탄가스를 맡았을 때에 땅에 엎어놓으면 삼일 만에도 깨어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살릴 수도 있었던 딸을 죽이고야 말았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져 그 어머니의 통탄해하시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딸이 떠나고 일 년이 지난 뒤에도 마음을 잡지 못한 채 괴로워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일들을 바로 곁에서 다 지켜보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 누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국인지 낙원인지 알 수 없는 곳에 그 누나가 있었는데 천사들이 자꾸 누나를 맨홀 같은 구멍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나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울고불고 소리를 치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누나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자 위로를 받으시고 그로부터 단호하게 삶을 정돈하시고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본인의 그리움이 딸을 그 좋아하는 곳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꿈에서 본 곳이 천국인지 낙원인지 단순한 상징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부터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살아있을 때에 가진 사람들이 바로 앞선 비유에서 나타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농부와 같은 자들이며 본문의 비유에서 나타난 값진 진주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좋음을 실제로 느끼며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지셨던 천국에 대한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음에도 개의치 않으셨으며, 민중들이 임금으로 삼고자했을 때에도 마다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느끼게 된 자들을 못 견딜 정도로 가지고 싶어 하며 탐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통해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들 중에서 좋음을 느끼고 그것들을 갖고자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좋음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일들을 향해 마음이 흘러들어 갈 때마다 십자가에서 마음을 죽음으로써 팔아버리고 천국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재산을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던 농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천국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처럼 여깁니다. 진주 장사가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천국이 우리를 갖고 싶어 하고 소유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군천사가 탐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탐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만져지지도 않는 천국의 좋음을 발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음에 대해 죽고 천국의 좋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처럼 탐내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막연히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의 위격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만 느끼시던 천국의 좋음을 우리 또한 느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천국의 좋음을 이 땅에 가져오신 배달부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하늘은 탐냅니다. 따라서 구원받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게 된 나를 천국이 탐내서 스카웃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옳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좋음을 느끼고 계셨기에 이 세상의 가치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좋게 여겨서 마음을 준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좋아하신 천국을 함께 좋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천국을 좋아하기에 이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에서 팔아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천국이 소유하고 싶어서 천국이 탐내고 스카웃해간다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

라'고 하였습니다.
앞선 비유에서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좋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국이 우리를 값진 진주처럼 여겨서 소유를 다 팔아 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란 아들로써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자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겨 소유를 다 판다는 비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나를 참여시키심으로써 사위일체를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천국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 되시고자 그 전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유지되어오던 삼위일체 되심을 포기하고 사위일체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진주 장사가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를 산다는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천국의 구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교통하심을 통해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면 단체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00명의 성도가 천국에 갔다면 100명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백 번의 사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전 세계에서 달을 볼 수 있지만 달을 나누어보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중심이고 내용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뜻을 모든 천군천사가 하나 되어 따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뜻으로 천국은 하나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안에 나를 포함시켜 사위일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은 2인 체제에서 3인 체제로 변화합니다. 생활 구도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탐내셔서 나를 가지실 때에는 영원 전부터 유지해오시던 삼위일체를 포기하시고 나와 사위일체를 이루시며 천국의 구도를 바꾸십니

다. 이것이 바로 진주 장사가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를 산다는 비유의 의미입니다. 성도라는 단체로써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대하실 때에도 성도는 나 한 사람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뜬 달을 모든 사람 각자가 온전히 다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군천사가 한 마음으로 탐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고 인도되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군천사가 한 마음으로 탐내는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를 탐내어 스카웃하였듯이 천국이 탐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음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끊임없이 죽임으로써 천국 좋음만이 유일한 좋음임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천국은 최고 몸값의 선수처럼 탐내면서 영입하고자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주님 안에 있던 천국에 대한 좋은 느낌을 나의 느낌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천국이 나를 볼 때에 탐내서 갖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